

신동진·대원 등 농촌진흥기관 개발·보급 10개 품종

114조원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농진청, 연간 생산유발효과 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액 기준 가능해볼때 매우 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보급한 10개 품종이 평균 26년의 품종수명 기간 동안 총 113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란 품종 등 개발된 기술을 도입·생산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로 인해 해당 산업과 타산업의 전·후방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말한다.

연간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는 4조 4,000억원(113조6,000억원/25.8년)으로, 2019년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R&D)

예산액인 6,504억원을 기준으로 가능해 볼 때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진청은 이번 10개 품종 작물 생산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품종이 다양하게 보급된 식량과 원예 2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식량 분야의 대상 품종은 다수성 고품질 벼 품종인 '신동진', 가공 적성이 높은 콩 품종 '대원', 다수성 착유용 들깨 품종 '나유' 등 5개 품종이다. 식량분야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73조9,000억원으로 산출됐다. 한 가지 보기로 1999년 품종 등록된 전북도

대표 벼 '신동진'의 품종수명을 23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에 개발된 장류, 두부용 '대원콩'은 품종수명을 28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1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원예 분야 품종은 농진청이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응해 개발한 내병충성 딸기 '설향', 국내 최초 육성 추석용 사과 '홍로', 뉴질랜드 키위 대향 참다래 '스위트골드' 등 5개 품종이다.원예 분야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9조8,000억원으로 산출됐다. 2005년 품종 등록된 딸기 '설향'의 경우 품종수명을 22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8년에 개발된 조·중생종 사과 '홍로'는 품종수명을

29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6조원으로 추정됐다.

농진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최근 발간한 '지역에 스며든 우리 품종 이야기'에 자세하게 수록했다. 이 책자에는 품종 개발 당시의 다양한 사연, 생산자 소감, 지역 활성화 활동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권택은 기술협력국장은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오랜 기간 품종을 개발한 연구자의 노력과 농업 연구개발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며 "'지역에 스며든 우리 품종 이야기' 출간을 계기로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품종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렇듯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오는 9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매장(140여 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전북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기획한 '코로나19 극복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연다.

'전북 우수농산물로 코로나19 극복해요'

도-전북농협, 전국 홈플러스 매장 140여곳서 특별판매전

도내 피해농가 고충 덜기 위한 무주 사랑애플 판매도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9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매장(140여 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전북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라북도 및 전북농협이 함께 기획한 '코로나19 극복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판매전 행사품목은 무주(사과, 복숭아), 남원(캠벨포도), 익산(벨프, 고구마), 순창(건고추) 등 6개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 불멸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와 6월 우박피해까지 겹쳐 사과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전북농협은 피해 농가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무주지역의 방해·우박 피해 사과(사랑애플 사과)를 판매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사랑애플이란 농가가 정성을 다해 재배했으나 이상기후로 결모습은 흠집이 있고 못생겼지만 맛은 정품과 같은 사과로, 전북농협은 농민을 사랑하

는 마음을 온 국민이 함께하자는 뜻으로 이러한 사과를 상품화했다.

전북농협은 사랑애플 사과를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하나로유통 등에도 추석 전 까지 추가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농산물 특별판매전은 전국 유명 대형유통매장에서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10~16일), 이마트에브리데이(17~23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더불어 대형유통매장에서 전북농산물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태풍피해 예방

사전 현장점검 나서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지난 4일 제9호 태풍 마이사의 영향으로 벼 도복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정읍시 태인면 일대 현장을 확인하고, 복상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기상특보에 의하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제9호 태풍 마이사의 영향으로 전북지역에 강풍과 많은 비가 내렸고, 장수군이 최고 128.1(mm)의 강수량과 최대순간풍속 21.1(m/s)을 기록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벼 도복피해(6,048.9ha)와 사과 피해(105.8ha)가 발생했고, 부안군에서는 하우스가 파손(20동 규모)되기도 했다.

박성일 본부장은 벼 도복 피해현장과 하우스시설 등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피해로 올해 농업인들의 상심이 크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철저한 대비와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인력지원, 병충해에 대비한 방제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태풍에 대비해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취약시설 사전현장점검과 농업인 행동요령 안내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중기중앙회,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선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특히 ▲지원기간 한도(연 180일) 확대와 ▲90% 특례 지원기간(올해 9월 말 종료)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 180일의 지원기간 한도에 의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주보인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연철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IFA 2020' 첫 참가

현대자동차는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가전·IT 전시회 IFA 2020(International Funk Ausstellung 2020)에 처음으로 참가해 친환경차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비전을 보여줬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KCR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는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해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유럽시장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IFA에 참가했다.

IFA는 유럽 최대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힌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병

행 행사로 열렸는데 현대차는 영상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온라인 부문에 참여했다.

현대차는 이날 IFA 2020의 디지털 전용 행사인 IFA 익스텐디드 스페이스 스페셜에서 미래 연료, 수소 사회로 가는 길을 열다 라는 주제로 수소연료 전지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IFA가 마련한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IFA 익스텐디드 스페이스와 IFA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토론에는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Albert Biermann) 사장,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 김세훈 전무,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마크 프레이뮐러(Mark Freymüller) 상무, 하이드로젠 유럽 사무총장 요르고 차치마크키스(Jorgo Chatzimakakis) 등 수소 산업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원주=이준복 기자

9월 벼 병해충 발생 '주의보'

전북농기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에서는 9월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벼 병해충과 원예작물 및 과수 병해충을 중심으로 '제12호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고, 작물별로 주의해야 할 병해충 정보를 참고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작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벼농사의 경우 태풍과 호우로 습도가 높아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간 물떼기를 잘하고, 논을 잘 살피 병든 줄기가 20% 이상이면 서둘러 등록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발생이 관찰되고 있으며, 올해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흑명나방은 막대기로 벼 포기를 두드려 나방이 나는 모습을 보거나 애벌레가 벼 잎을 세로로 잘고 잡아먹는 피해 양이 1~2개 정도 보이면 즉시 방제한다. 또한, 벼멸구 등 멸구류가 날아올 수 있어 밭대 아래쪽을 잘 살펴봄으로써 초기에 방제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과수에서는 사과, 복숭아, 포도 등에 발생하는 탄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수원 내 통풍과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하고, 예방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하여 균의 밀도를 줄여 주어야 한다. 그 외에 갈색무늬병, 검무늬썩음병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포장을 잘 살펴 발생 초기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용약제로 방제한다.

그리고 갈색납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이 사과, 단감 등에서 그을음병 등을 유발해 과일의 상품성을 하락시키고, 가지에 잎을 낚아 피해를 주므로 산란 전에 주변 산림지역까지 공동방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고추에서는 고온이 지속될 경우 진딧물, 총채벌레 등 매개충들의 밀도가 높아져 바이러스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예방 위주로 계통이 다른 등록 약제를 번갈아 살포해 철저히 방제한다. 또한, 올해에는 탄저병과 역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방벌 후에는 급속도로 전염되어 방제가 어려우므로 예방 위주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농업기술원 조해일 농촌지도사는 "폭염과 호우로 농작물이 연약하여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시로 잘 살펴봄으로써 적기에 방제하여 줄 것"과 "수확기인 농작물에 농약이 잔류되지 않도록 등록된 약제로 적량만 사용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GAP 농산물 판로확대 전용판매대 27개소 개설

전북농관원, 도내 로컬푸드직매장·대형마트 등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에서는 'GAP인증제도'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GAP 농산물생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부터 농협, 대형유통업체 등 도내 유통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로컬푸드직매장 농식품 판매장 내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 개설을 공동추진해 지난해 21개소, 올해 6개소 등 총 27개소를 개설했다.

이처럼 전북농관원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유통업체 농식품판매장 내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 설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GAP인증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매일 'GAP인증 홍보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로도 활용돼 판매 촉진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제철에 생산되는 신선한 과실·채소·버섯 등 GAP인증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GAP농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GAP인증 농가는 1만2,557호(지난달 31일 기준)로 전국 농가수(10만7,194호)의 11.7%로서,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GAP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 설치·운영으로 도내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경 지원장은 "앞으로도 도내 유통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어렵게 개설된 GAP농산물 전용 판매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aT 포스몰, 9월 한 달 동안 농축산물 할인판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운영하는 생산농가와 중소상인의 직거래 플랫폼인 포스몰(posmall.co.kr)에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농할(농축산물 할인)갑시다'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포스몰 농할관에서 1만 원 이상 누적 구매 시 1인당 구입액의 20%를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페이백해준다.

aT 포스몰 농할관에서는 전문 MD가 전국 방방곡곡 발품을 팔아 선정한 한우, 한돈, 버섯, 잣, 잡곡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추석선물용으로 인기있는 사른세트(사인머스켓+메론), 영랑 참굴비, 포고버섯, 발골 등 풍성하고 실속있는 선물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추석관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긴 잠마와 잦은 태풍으로 잠바구니 물가가 올라 걱정이 많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은 최대 30%까지 할인 판



매한다. 한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는 농축산물 수요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추진 중인 캠페인으로, 전국 9개 온라인 몰(마켓컬리, 네이버,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Cjmall, 11번가, 이베코, 쿠팡)에 이어 9월부터는 전국 10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온라인몰도 대거 참여한다.

aT 농식품거래소 운영배 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aT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며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구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